

6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빅데이 D-1` 뉴욕 등락 끝 혼조.. 다우 0.19%↓	23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졌고 S&P500 지수는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했지만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16.10포인트(0.19%) 하락한 8,322.9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7포인트(0.07%) 내린 1,764.9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2.06포인트(0.23%) 상승한 895.10을 각각 기록했다. 주택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 탓에 장 초반 하락세를 타기도 했던 주요 지수는 국채 입찰 수요가 비교적 견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권으로 낙폭을 축소했고 이후 장 마감까지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음. 블루칩 종목인 보잉이 `드림라이너 787` 인도가 또 연기됐다는 소식에 급락하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내렸음. 램버스의 매출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기술주도 약세를 나타내며 나스닥 지수에 하향 압력을 가했으나 금융주가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음.
기존주택판매 `두달째 증가`..전망은 하회	미국의 기존주택판매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 그러나 증가폭은 월가 전망에 미치지 못했음.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5월 기존주택판매(계절조정)가 전월대비 2.4% 증가한 연율 477만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로써 기존주택판매는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었으나 이는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482만채, 485만채를 하회한 수준임. 주택가격(중간값)은 17만 3,0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8% 하락했음.
유가 사흘만에 반등	달러 약세와 원유 재고 감소 전망이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되어 국제 유가는 사흘만에 반등.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74달러(2.6%) 오른 69.24달러에 마쳤음.

제목	주요 내용
닛산, 일반차 가격에 전기차 출시 계획	카를로스 곤 닛산차 CEO는 "오는 2012년까지 미국 테네시주 스머나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닛산은 2012년 전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전에, 내년부터 먼저 일본과 미국 주요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 가을부터 일본 카나가와현 공장에서 5만대 가량을 생산키로 했음.
사모펀드들, 유럽 상업용부동산 `바겐현팅`	22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부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16개 이상의 사모펀드들이 관련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거나 조만간 펀드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랙스톤 그룹은 유럽에서 20억달러 규모로 `스페셜 시추에이션` 부동산 펀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주식보다는 주로 부동산 대출을 사는 식으로 운용할 방침. 블랙스톤은 개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근 4억달러 규모의 특수펀드를 3주만에 조성하기도 했음.
北,미사일 발사 임박`.. 韓 위험지수 가파르게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데다 북한 관련 안보리스크마저 높아지면서 각종 신용지표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싱가포르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 외평채 5년물에 대한 CDS프리미엄은 전일 대비 11bp(1bp=0.01%p) 상승한 205bp(22일 기준)을 기록했다.
삼성-뉴모닉스 손잡고 차세대메모리 상용화	삼성전자는 24일 뉴모닉스와 차세대 상변화메모리 공통기술규격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PCM이 상용화되면 고성능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성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사는 올해 PCM 공통 규격을 완성해 내년에 본격 상용화할 계획. 김세진 삼성전자 상무는 "양사의 협력으로 PCM이 모바일 시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차세대 메모리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